

밥다다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위대한 버린 자인 자녀들 모두를 보고 있다. 밥다다는 어떤 자녀들이 이 위대한 행운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까이 왔는지 보고 있다.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대등하며 고결하고 완전히 버린 자녀들을 보는 것이 그는 즐겁다. 완전히 버린 자녀들은 어떤 특질을 토대로 가까이 왔고 대등해졌느냐? 육신의 형태에서 바바는 세 가지 특질에 대한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1. 너희가 비록 육신을 가졌지만 생각으로는 변함없이 무체이며 한결같이 초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다.
2. 말에서 너희가 끊임없이 애고가 없는 것, 다시 말해 영적인 다정함과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다.
3. 모든 신체감각으로 행위에서 너희가 악덕이 없는 것, 즉 순수성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모든 신체감각을 통해서 위대한 기부자이며 축복의 공여자가 되어라. 이마를 통해서 축복의 공여자이며 위대한 기부자가 되어 모든 이에게 그들의 원래의 형태를 상기시켜 주어라. 너희 눈에서 나오는 영적인 드리시티로 모든 이에게 그들의 본래의 집, 즉 해방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들의 주권, 즉 해방된 삶에 대한 비전을 줘라. 너희의 드리시티를 통해서 그들의 왕국을 언뜻 일별하게, 또는 길에 대한 신호를 얼핏 보여줘라. 그들이 진정한 집과 왕국을 느끼도록, 그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고 왕국을 얻는 길을 찾았다고 느낄,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축복해줘라. 그렇게 엄청난 기부와 축복을 받고서 그들이 한결같이 명랑해지게 해줘라. 너희의 말에서 그들이 창조자와 창조에 관한 일체의 상세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게 해서 창조자의 첫 번째 피조물이 되는, 즉 고귀한 브라민이 된 다음에 신인이 될, 첫 번째 피조물이 되는 축복을 얻게 해라. 마찬가지로 너희의 두 손으로 축복의 공여자가 되어서, 남들이 한결같이 쉬운 요기가 되고 고귀한 행위를 행해서 그 고귀한 결실을 얻는 카르마 요기가 되게 하는 축복을 줘라. 너희의 연꽃 발로 매 발걸음마다 아버지를 따르며 모든 걸음마다 수백만의 수입을 쌓는 축복을 줘라. 너희의 신체감각 하나하나를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즉 악덕 없는 생을 영위하는 경험을 주는 축복의 공여자가 되어라. 완전히 버린 자에게서는 그러한 세 가지 특기가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완전히 버린 영혼은 어떤 악덕에게 조금이라도 영향 받아서 행동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미 전에 너희들에게 악덕들의 왕족다운 흔적의 형태에 대해 얘기해주었다. 큰 형태의 악덕들은 끝났지만 그것의 왕족다운 형태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너희들은 이 얘기를 기억하지 않느냐? 브라민들의 언어에는 왕족다운 품위가 갖추어졌다. 그것의 확장은 아주 길어졌다. “내가 옳아!” 혹은 “내가 맞아!” 너희들이 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사용하는 그런 왕족다운 말들이 많다. 너희들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남들의 약점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왕족다운 말도 역시 많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큰 사전이 된다. 그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너희의 약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너희가 만마트 (제 자신의 지시)의 말을 쓰는 것이다. 너희 모두 이 확장을 아주 잘 안다! 완전히 버린 자는 어떤 악덕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말은 결코 쓰지 않는다. 너희가 생각, 말, 행위에서 끊임없이 악덕의 흔적을 완전히 초월해 있는 것이 완전히 버린 자, 즉 악덕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초월한 자가 되는 것이다.

완전히 버린 자는 언제나 세계 시혜자로서의 특질을 지닌다. 그는 변함없이 공여자의 자녀인 공여자이며 남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느낌으로 충만하다. 그는, 상대방이 그렇게 해야만, 또는

상황이나 분위기가 그러해야만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유익한 일을 하기 전에 남들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되는 길, 먼저 받아야만 주는 자, 먼저 협조를 받아야만 협조해주는 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주면서 동시에 받는 일이다. 그러나 완전히 버린 자는 공여자 마스터이며, 한결같이 자기 힘을 사용해서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나약한 자들을 강력하게 만들고 분위기와 태도를 변화시켜서 유익을 가져다주는 일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여긴다. 모든 상황에서 그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의 협조와 힘들이라는 크나큰 기부와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 아니다! 그는 언제나 공여자 마스터이며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순수한 느낌으로 자기 힘을 쏟으로써, 즉 남들에게 그 힘들을 줌으로써 과제를 계속 수행한다. “나는 줘야 해! 내가 이 일을 해야 해! 내가 변해야 지! 나는 겸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들이 아르주나다, 즉 그들은 공여자가 되는 특질을 갖고 있다.

완전히 버린 자는 항상 미덕들의 화신이다. 미덕들의 화신이 된다 함은 스스로도 덕성이 있고 모든 이에게서 항상 미덕들만 본다는 뜻이다. 어떤 이가 미덕들의 화신이 되면 그의 시선과 태도에는 미덕들이 가득할 것이고 그 결과 그는 자기 눈길과 태도를 통해서 남들에게서 오직 미덕들만을 볼 것이다. 결합들을 보고 이해하면서도 그의 지각은 어느 누구의 결합도 혼잡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그는 그것들을 지각에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는 거룩한 백조다. 돌을 알아보되 그것들을 집어들지는 않는다. 사실 그는 자기가 얻은 미덕들의 힘으로 다른 영혼들의 결합을 없애서 그들이 덕성 있게 되도록 돕고자 노력할 텐데, 왜냐하면 그는 공여자 마스터의 산스카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버린 자는 봉사에서 성공하는 과제, 브라민 영혼들이 발전하도록 돕는 과제, 약하거나 낭비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과제 등 고귀한 모든 과제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여긴다. 봉사에서 어떤 장애로 인해서 혹은 그와 연결되어 있거나 관계를 가진 “등수대로의” 영혼들로 인해 조금이라도 격동이 생기는 경우, 완전히 버린 영혼은 그 자신이 무한한 지원의 화신이라 여기며 모든 곳의 그 격동을 가라앉히는 일을 자기 책임으로 간주한다. 그는 제 스스로를 것처럼 무한한 발전을 위한 지원의 한결같은 형상이라 여긴다. 그는 그 상황이 단지 그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되었거나 그 특정한 형제나 자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내 가족이다! 나는 자애로운 도구 영혼이야!” 너희는 “자아의 시혜자”나 “센터의 시혜자”가 아닌, “세계의 시혜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남들의 나약함은 곧 너희 가족의 약점이라는 뜻이다. 그는 제 스스로를 무한한 방식으로 도구라 여긴다. 그는 “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며 도구라는 의식뿐이다, 즉 세계의 유익을 위한 지원, 무한한 과업을 위한 지원의 형상이라는 의식뿐이다.

완전히 버린 자는 늘 모든 이와 똑같은 파장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한 가족의 하나의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 분만을 의식함으로써 그는 1등의 영혼이 된다.

완전히 버린 영혼은 그 스스로를 즉각적인 결실의 화신인 영혼으로 경험하고 즉각적인 결실을 이미 성취해왔다. 이 말은 버린 영혼이 즉각적인 모든 결실과 실질적인 결실로 항상 변함없이 가득한, 불멸하여 파괴할 수 없는 나무와 같다는 뜻이다. 그런 영혼은 결실의 즉각적인 화신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제한된 어떤 행위에 대한 한정적인 결실을 받으려는 일시적인 욕구를 모를 만큼 무지하다. 그가 실질적인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변함없이 건강하다. 그는 늘 건강하다. 그에게는 마음의 병이 없다. 그는 끊임없이 “만마나바브”다. 너희는 그 정도로 완전히 버린 자가 되었느냐? 특질 세 가지를 항상 너희 앞에 모두 두고 “나는 어떤 유형의 버린 자인가?” 라고 스스로 자문해봐라. 나는 얼마만큼이나 멀리 도달했는가? 나는 계단을 몇 개나 올라왔고 아버지와 대등해지려는 목표에 얼마나 근접했는가? 계단을 전부 다 올라갔느냐, 겨우

몇 계단만 올라갔느냐? 7일 코스 중에서 너희는 이제까지 몇 단원이나 완전히 마쳤느냐? 7일 코스에서 보그는 마지막 날 올린다. 밥다다가 지금 보그를 올려야겠느냐? 너희들 모두 목요일에 보그를 올리지만 밥다다는 마하보그 (큰 보그)를 제공한다. 트랜스 메신저들은 서틀 리전으로 보그를 가져가지만 밥다다가 어디서 보그를 받느냐? 무엇보다 먼저 너희들 자신을 보그로 바쳐라. 보그도 역시 아버지에게 바쳐지지 않느냐? 너희들 자신을 끊임없는 결실의 화신으로 만듦으로써 이제는 너희 자신을 바쳐라, 오직 그제야 마하보그를 바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를 완성시켜서 너희 자신을 바쳐라! 물질의 보그만 바치지는 마라. 완전한 영혼이 되어 너희 자신을 바쳐라! 이해하느냐? 너희가 뭘 더 해야 할지 이해했느냐?

앗차, 이제 한 차례 더 만날 순서 (시간)가 남았다. 사실 이런 식으로 육신의 형태로 만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다.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하면 오늘이 육신의 형태로 만나는 것을 마치는 수료 행사다. 나중에 어찌 될지 우리 함께 두고 보자.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 스스로를 위한 이 만남들의 핵심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그저 바바가 말한 것만 들었느냐, 아니면 그것을 너희 내면에 합쳐 넣고 실천에 옮겼느냐? 이번 시즌의 만남은 특히 어떤 계절의 열매를 가져다주겠느냐? 이번 시즌의 만남들에서 어떤 결실이 나오겠느냐? 계절 과일에는 중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번 시즌에 나온 결실은 무엇이었느냐? 물론 너희들은 밥다다를 만났지만 만나는 것이 곧 대등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밥다다에게 지금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등해지려는 결단력의 열매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런 열매를 너희가 준비했느냐? 너희들 자신을 준비해두었느냐? 아니면 너희는 지금 그저 모든 것을 듣기만 했고, 앞으로 너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느냐? 너희는 만남을 단지 축하만 하겠느냐, 아니면 그렇게 되려느냐? 너희가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넘치는 열성과 열의를 갖고 이리로 달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등해지려고 너희는 날아다니고 있기도 하지 않느냐? 오고가기 위해 사용하는 편의시설에서 너희는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마저 견딘다. 그렇지만 날아다니는 단계로 진입하는 데는 아무 노력도 들지 않는다. 너희는 한정된 나뭇가지들을 지원으로 삼고는 그것들을 꼭 거머쥐거나 그 위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오 날아다니는 새들아, 이제는 나뭇가지를 손에서 뉘라! 심지어 그것이 황금가지라 해도 그걸 놓아라! 시타를 슬픔의 오두막으로 보낸 것은 황금 노루였다. “내 것” “내 이름” “나에 대한 존중” “내 명예” “나의 센터” 라는 의식은 모두 황금가지들이다. 너희는 무한한 권리를 놓치고 한정된 권리를 거머쥐려 한다! “이건 내 권리야.” “이게 나의 의무야.” 날아다니는 새가 되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날아라. 그런 한정된 지원들을 모두 놓아버려라. 너희는 해방시켜 달라며 끊임없이 깽깽거리는 앵무새가 아니다. 그들은 제 자신이 놓지 않으면서 풀어달라고 깽깽댄다. 그런 앵무새가 되지 마라! 손을 놓고 날아라! 놓기만 하면 너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밥다다는 너희들에게 날개를 주었다. 날개를 단 목적이 날기 위함이나, 앉아있기 위함이나? 날아다니는 새가 되어라, 즉 날아다니는 단계에서 끊임없이 계속 날아라. 이해하느냐? 이것이 계절의 과일을 바치는 것이라 하는 것이다. 앗차.

끊임없이 실질적인 결실로 가득하며 완전한, 고귀한 영혼들에게, 아버지와 똑같이 한결같이 무체이며 에고 없고 악덕 없는 자들에게, 어떤 악덕도 그들의 행위에 닿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완전히 버린 영혼들에게, 날아다니는 단계에서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아버지와 대등한 그렇게 고결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의 단계로 낭비의 쓰레기들을 끝내라 .**

너희는 한결같이 제 스스로를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로 여기느냐? 전능한 권위자가 된다는 것은

강력해진다는 뜻이다. 강력한 자들은 낭비라는 쓰레기를 끝낼 수 있다.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는 낭비의 이름이나 흔적도 없는 이라는 의미다. 낭비를 전부 다 끝내는 강력한 영혼이 되겠다는 목표를 늘 간직해라. 쓰레기를 태우고 어둠을 쫓아내고 빛을 주는 것이 해의 의무이듯이 지식의 태양 마스터는 낭비의 쓰레기를 끝내는 이, 암흑을 몰아내는 이가 된다는 뜻이다. 너희가 만일 영향을 받는다면 너희는 약하다. 아버지는 전능한 권위자인데 그의 자녀들은 약하다는 말을 아버지는 듣고 싶지가 않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나는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다”라는 의식을 가져라. “내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단 한 명도 많은 수의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 너희 스스로 강력해지고 남들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라.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쫓아낼 수 있거늘 너희가 원들 할 수 없겠느냐? 언제나 분위기를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져라. 세계 변화자가 되기 전에 센터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분위기를 강력하게 만들어라.

#### **밥다다가 부부들을 만나심 :**

너희들 모두 집에서 가족들과 살면서도 가정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우며 끊임없이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은 어떤 유형의 활동에서도 굴레에 갇히지 않을 테지?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굴레나 그들과의 관계에 갇히는 영혼들을 굴레에 갇힌 영혼이라 한다. 굴레가 없게 하고, 심지어 마음의 굴레조차 없게 해라. 세속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전혀 가지지 마라. 세속의 관계 속에 살면서도 너희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을 지속해라. 그것은 단지 명목뿐인 세속의 관계이지만 너희의 의식 속에서는 미묘하고 영적인 관계가 있게 해라. 변함없이 연꽃 자리에 앉아 있어라. 단 한 방울의 물이나 티끌도 너희에게 닿지 않게 해라. 너희가 아무리 여러 영혼과 접촉하게 되더라도 끊임없이 사랑하며 초연한 상태에 머물러라. 너희는 봉사를 위해서 서로 관계를 가질 뿐이니 그것은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봉사를 위한 관계다. 너희는 육신의 관계 때문에 가족과 사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관계 때문에 살고 있다. 그것은 너희의 가정이 아니라, 봉사의 장소다. 그것을 봉사의 장소라 여김으로써 너희는 끊임없이 봉사에 대한 의식을 가질 것이다. 앗차.

**Blessing:** 악덕이라는 뱀들을 화환으로 엮어 목에 거는 참된 타파스위가 되어라. 이 5악은 사람들에게는 독사들이지만 요기이며 타파스위 영혼인 너희들에게는 이 뱀들이 목에 걸린 화환이 된다. 이런 이유로 브라민인 너희들과 아버지 브라마의 기념물로 몸 없는 타파스위 형태를 나타내려고 그들은 샹카르의 목둘레에 뱀으로 엮은 화환을 보여준다. 뱀들은 너희들이 밟고서 행복하게 춤추는 무대가 된다. 그들은 이것을 정복을 나타내는 징표로 보여왔다. 너희들의 영적인 단계가 무대다. 악덕들에 대해 그런 승리를 거둘 때 너희는 진정한 타파스위라 불릴 것이다.

**Slogan:** 낡은 세상과 오래된 산스카르에 대해 죽는 것이 산 채로 죽는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